

광주시, '청년 일경험' 제공할 사회연대경제기업 모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권역)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 참여기업 모집

참여대상 ※ 참여기준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 마을기업 | 고용 1인 이상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기업
 ● 협동조합 | 고용 1인 이상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비영리법인·단체 |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지원내용
 참여청년 인건비 전액 ● 운영비 ● 멘토수당 ● 4대보험 기업부담분 11.47% 전액 지원

전액지원 인건비 / 월 + 20만원 운영비 / 월 + 15만원 멘토수당 / 월
 주 40시간 기준, 234만원 (유급주휴 포함, 세전)

추진절차
 기업모집 → 기업선정 → 청년매칭 → 일경험 운영

● 참여방법 | 이메일 접수 (edu@gjsec.kr)
 ● 문의처 |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교육정책팀 (062-531-6667, 내선1번) 070-7707-0088, 070-4439-5776

행정안전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연대경제 청년일경험 사업 참여기업 모집 포스터

/광주광역시 시청 제공

7월 1~6일 2차 접수 청년일자리 창출·기업 생태계 위기 극복
 기업당 최대 4명 총 56명 추가 배치...인건비·4대 보험 등 지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7월 1일부터 6일까지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에 참여할 사회연대경제기업을 2차 모집한다.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은 지역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광주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이다. 광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직접 과업을 수행하며 일경험을 쌓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광주지역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다. 각 기업은 최대 4명의 청년 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 2차 모집을 통해서 56명 이내의 청년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앞서 1차 모집을 통해 사회연대경제기업 16개소를 선발했으며, 이들 기업에 총 40명의 청년을 연계(매칭)할 예

정이다. 이번 모집부터는 시행지침 1차 개정 내용이 적용됨에 따라 국비 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총괄·운영하는 기관의 참여가 가능해졌다. 단, 국비 일자리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 참여는 제한된다.

광주시는 참여기업에게 1차 모집과 동일하게 ▲참여청년 인건비(월 234만원) ▲4대보험 기업부담분(월 26만원) ▲기업운영비(월 20만원) ▲멘토 수당(월 15만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기업 심사는 대면심사 및 현장실사 방식으로 진행해 선정결과를 별도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청년을 모집·선발해 기업-청년 연결(매칭)을 확정하고 7월 중순부터 2차 일경험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교육정책팀 (062-531-6667, 내선 1번)으로 문

의하면 된다. 임병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고용취약계층인 지역 청년들에게 소중한 일경험을 제공하고 다소 위축됐던 지역 사회연대경제기업 생태계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2차 모집을 통해 사회연대경제기업과 청년을 추가로 연계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탬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청년 인건비와 4대 보험 기업부담분, 기업운영비, 멘토 수당 등을 지원해 안정적인 일경험 운영을 뒷받침한다. 참여 청년들은 사회연대경제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하며 직무 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기업 심사와 청년 선발을 거쳐 기업과 청년 간 매칭을 완료한 뒤 7월 중순부터 일경험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이유빈 기자

기아, PV5 신규 라인업 앞세워 전동화 모빌리티 확장 비전 제시

기아가 '2026 부산모빌리티쇼'에서 PV5 신규 라인업과 산업 맞춤형 협업 모델을 공개하며 PBV를 통한 전동화 모빌리티 확장 비전을 제시한다. 부산 벡스코(BEXCO)에서 26일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7월 5일까지 열리는 이번 모빌리티쇼에서 기아는 EV 풀라인업과 비전 메타투리스모를 전시하고, 신규 PV5 라인업 3종을 선보인다. 또한 외부 생태계와 연계한 협업 모델을 공

개하며 PBV 비즈니스 확장 가능성도 제시한다.

기아 송호성 사장은 26일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기아는 2021년 EV6 런칭을 시작으로 올해 초 EV2까지 총 6종의 EV 모델로 고객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하며 EV 대중화를 선도했다"며 "자율주행과 SDV, 로보틱스 중심으로 재편되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아는 2030년까지 PBV 3종을 포함해 총 14개 모델로 전기차 라인업을 확장할 계획"이라며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니즈를 모빌리티로 실현시켜 모빌리티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EV Tier 1' 브랜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 PV5 신규 라인업 3종 공개... 고객과 사업 현장에 맞춘 라인업 확대

기아는 이번 부산모빌리티쇼에서 패신저 7인승(2-2-3), 프라임,

카고 하이루프 등 PV5 기반 신규 라인업 3종을 공개한다.

PV5 패신저 7인승은 다인승 패밀리카, 렌터카, 셔틀버스 등 다양한 이동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열 시트를 한쪽으로 배치한 2-2-3 구조로 구성해 3열 승차차 편의성을 높였다. 후석 공조 시스템, 후석 열선 시트, 충전용 USB C 타입 단자 등 편의사양도 추가 적용됐다.

PV5 프라임은 후석 독립 시트와

레일, 통풍 시트 등을 적용해 프리미엄 이동 경험을 제공하는 PV5 패신저 기반 컨버전모델이다. 외장에는 문스케이프 매트그레이와 스노우 화이트 펄 등 전용 색상을 적용하고, 블랙 스킴드 플레이트와 알로이 휠, 전용 엠블럼을 더해 상품성을 높였다.

택배 운송자나 부피가 큰 화물을 다루는 배달 수요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유빈 기자

토지권원 95.2% 달성! 조합원 모집 신고필!
조합사업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조합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양동현대지역주택조합